【보도자료】

메이드 인 코리아 MADE IN KOREA

보도자료 및 영상/사진 자료 다운로드

[링크 바로가기]

작품 관련 문의는 스콘(02-334-8855, scon@scon-is.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

제　　목　메이드 인 코리아
감　　독　우민호
각　　본　박은교, 박준석
각　　색　우민호, 김진석
출　　연　현빈, 정우성, 우도환, 조여정, 서은수, 원지안, 정성일, 강길우, 노재원, 릴리 프랭키 그리고 박용우
제　　공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　　작　(주)하이브미디어코프
공　　개　2025년 12월 24일(수) 첫 공개 *매주 수요일 순차 공개 (총 6회)

기간	날짜	에피소드
D-0W	12/24(수)	1, 2회
D+1W	12/31(수)	3, 4회
D+2W	1/7(수)	5회
D+3W	1/14(수)	6회

LOGLINE

1970년대 혼란과 도약이 공존했던 대한민국,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아 부와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는 사내 '백기태'(현빈)와 그를 무서운 집념으로 벼랑 끝까지 추적하는 검사 '장건영'(정우성)이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건들과 직면하는 이야기

SYNOPSIS

무엇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가?
국가가 비즈니스 모델이고, 최고의 수익은 권력이다!

1970년대 혼란과 도약이 공존했던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정보과 과장 '백기태'(현빈)는 청와대 경호실장과의 만남을 계기로 부와 권력을 향한 끝없는 야망에 불타오른다.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시대에 누구보다 큰 힘을 갖는 것!
급기야 그는 뒤를 봐주던 조직과 함께 일본 야쿠자를 통해 불법 사업을 도모한다.

때마침 국가의 예민한 사건들만 파헤치던 외골수 검사 '장건영'(정우성)은 '백기태'의 과감한 이중생활에 수상한 냄새를 맡고...
그를 집요하게 수사하던 중 권력의 맨 끝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범죄 카르텔을 마주한다.

"힘을 가진 일인자가 될 것인가?" VS "주어진 것에 순응하는 놈들이 될 것인가?"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건들을 직면하며, 각자의 욕망에 치닫는 광기의 충돌이 펼쳐진다!

ABOUT SERIES 1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디즈니+의 하이엔드 시리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모두 모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과
<서울의 봄>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의 완벽한 조합!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디즈니+의 하이엔드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과 최고의 제작진들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공개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1970년대 혼란과 도약이 공존했던 대한민국,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아 부와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는 사내 '백기태'(현빈)와 그를 무서운 집념으로 벼랑 끝까지 추적하는 검사 '장건영'(정우성)이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건들과 직면하는 이야기다.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신뢰를 쌓아온 배우 현빈은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백기태' 역을 맡아,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강렬한 얼굴을 선보인다. 우민호 감독은 **"정말 현빈의 '백기태'다. 매력적으로 힘 있고 가감 없이 표현되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각본을 맡은 박은교 작가는 **"'백기태'는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선을 찾기가 힘든 캐릭터다. 현빈 배우가 그 경계를 세련되게,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흡사하게 표현해 주셔서 놀랐다"**라고 밝히며 생생하고 복합적인 캐릭터를 빚어낸 현빈의 연기력에 박수를 보냈다.

광기 어린 집념으로 사건을 쫓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장건영' 역을 맡은 배우 정우성을 비롯해, 우도환, 조여정, 서은수, 원지안, 정성일, 강길우, 노재원, 릴리 프랭키, 그리고 박용우까지 수식어가 필요 없는 연기력과 존재감을 지닌 배우들이 총출동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우민호 감독은 **"인연이 있었던 배우들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새로운 작품에서 만나, 노는 것처럼, 조금 더 자유롭고 재미있게 찍었다"**라고 말해 이들이 만들어낼 연기 앙상블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하얼빈>, <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 등 한국 영화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우민호 감독은 첫 OTT 시리즈에 도전한다. 묵직한 연출로 시대와 사회, 인간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을 견고하게 담아온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그 장점을 고스란히 발휘해 특유의 도파민이 치솟는 전개를 한층 극대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캐릭터들이 에너지를 정면으로 부딪치는 팽팽한 대립 구조를 완성한 박은교 작가의 극본까지 더해져, 밀도 높은 스토리와 묵직하고 서늘한 서스펜스로 가득한 하이엔드 시리즈가 완성되었다. 제작진과 배우진은 **"좋은 감독과 일할 수 있는 건 언제나 큰 행운이다"**(김태성 촬영감독), **"우민호 감독님은 1컷을 찍을 때도 완벽을 추구한다"**(김경석 조명감독),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드는 생각이 '재밌다'였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드는 작품이 흔치 않다"**(강길우)라며 최고의 크리에이터들이 만나 압도적인 시너지를 탄생시켰음을 전해 더욱 기대를 높인다.

ABOUT SERIES 2

‘욕망’으로 얽히고설킨 인물들의 치밀한 관계성!
입체감 넘치는 캐릭터들의 팽팽한 맞대결!

각 캐릭터의 개성과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관계성은 우민호 감독과 박은교 작가가 공통으로 꼽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박은교 작가는 **“마음껏 질러보는 캐릭터들을 많이 써볼 수 있어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말하며, 작품 속 인물들에 대해 **“에둘러서 가거나 조용히 치밀하게 쌓아가서 터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만나면 바로 서로 에너지를 풀파워로 부딪힐 수 있는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치열한 에너지로 충돌하는, 욕망과 야망이 가득한 캐릭터들은 시리즈 전반에 긴장감과 속도를 부여해 구독자들에게 거침없는 재미를 예고한다.

이들의 입체적인 면모는 캐릭터를 단순한 선악 구도로 재단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특히, 서사의 주축이 되는 ‘백기태’와 ‘장건영’의 대립 역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 속에 한쪽을 규정하고 응징하는 구조에 머물지 않는다. 단지, 각자의 사연에서 비롯된 목표가 얼마나 집요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보여줄 뿐이다. ‘백기현’, ‘배금지’, ‘오예진’, ‘이케다 유지’, ‘천석중’, ‘강대일’, ‘표학수’, ‘황국평’ 등의 인물들 역시 시대의 한복판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움직이며,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부터가 악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는 다면적인 얼굴을 드러낸다. 혼란의 시대에 부딪히는 인물들의 이해관계는 시청자의 판단을 한순간도 편안하게 놔두지 않는다.

그들이 지닌 욕망을 극대화해 구현한 각 캐릭터의 동기는 서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한다. 이들의 선택을 따라가며 완성되는 이야기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몰입감을 만들어낸다. 우민호 감독은 **“각 캐릭터가 가진 시대의 욕망을 보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작품의 핵심을 짚었다. 캐릭터들의 욕망이 맞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서사를 흔들고, 나아가 시대와 역사를 뒤흔드는 파장으로 확장된다. 우민호 감독의 말처럼, 시청자들은 서로 다른 욕망을 지닌 인물들과 지나간 한 시대를 함께 통과하는 듯한 경험을 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지닌 ‘캐릭터 드라마’의 힘을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될 것이다.

ABOUT SERIES 3

대서사 시대극 x 액션 느와르 x 범죄 드라마 x 심리 스릴러의 완벽한 하이브리드!
1970년대를 관통하는 초대형 스케일의 밀도 높은 서사!
단 한 순간도 예측 불가능한,
끊임없이 판도가 바뀌는 서스펜스와 몰입!

<메이드 인 코리아>는 혼란과 도약이 공존하던 1970년대 대한민국을 무대로, 인물들의 욕망과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는 거대한 서사를 펼쳐낸다. 권력과 비리, 음모와 야욕이 겹겹이 뒤엉킨 시대의 단면을 생생하게 포착하며,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던 거친 세계를 입체적으로 담아냄으로써 한 개인의 서사를 넘어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

여기에, 각자의 이익을 좇는 세력들이 더해져, 판도가 끊임없이 뒤집히는 예측 불가능한 흐름이 이어진다. 범죄 드라마의 강력한 긴장감 위로, 쫓고 쫓기는 짜릿한 액션의 속도감, 치밀하게 맞물린 심리전의 압박감이 절묘하게 쌓여 올라가며, 시대극·액션·스릴러·느와르가 결합된 장르적 정점을 구현한다. 배우 현빈이 **"범죄 드라마, 심리 스릴러, 액션 느와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장르를 한 작품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이는 작품을 관통하는 강점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다층적인 장르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신선한 리듬과 에너지,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풍부한 재미는 <메이드 인 코리아>만의 강력한 차별점으로 자리한다. 시대의 무게를 정교하게 직조한 서사, 치밀하게 축적된 긴장감, 장르가 선사하는 강렬한 쾌감이 서로를 견인하며, 기존의 기준을 넘어서는 독보적 완성도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ABOUT SERIES 4

6편의 시리즈가 곧 6편의 영화가 되는 시네마틱한 경험!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엣지 있는 미장센이 선사할
차원이 다른 웰메이드 프로덕션!
예술적 긴장감과 리얼리티로 채워진 압도적인 몰입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최고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만든 '영화 같은 6편'으로 구성된 시네마틱 시리즈다. 각 에피소드를 한 편의 영화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카메라 워킹, 조명, CG 등 제작 과정 전반에서 공을 들였고, 그 결과 1970년대 대한민국을 가장 설득력 있게 구현한 여섯 편의 영화가 완성되었다.

제작진은 '19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순간을 어떻게 리얼하게 시각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다. 오래된 과거를 다루는 시대극임에도, 올드함 없이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다채로운 인물과 밀도 높은 서사를 화면에 담아냈다. 1970년대의 공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 일본,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로케이션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다른 작품과 차별화된 장대한 스케일과 리얼리티를 살려낸 시대극이 탄생했다.

카메라와 조명 또한 캐릭터의 성격과 욕망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1차원의 촬영 구도는 1970년대 고유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담아냈으며, 수직적 구도를 활용한 카메라 워킹은 인물들 사이의 격렬한 욕망과 대립을 드러낸다. 특히 '백기태'의 주요 공간인 중앙정보부는 묵직함 속에서도 개방감을 지닌 구조로 설계해 '백기태'의 야망과 에너지를 시각화한 반면, '장건영'의 검사실은 어둡고 답답한 반지하 구조를 강조해 두 인물의 성향과 권력의 격차를 대비시켰다.

김경석 조명감독은 **"약 50년 전의 오래된 과거를 담아내는 시대극이지만, 당시에도 세련된 색감과 빛은 존재했을 것"**이라고 전하며, 시대적 배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작품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색채를 찾기 위해 세심한 조명 디자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출세 욕망에 사로잡힌 '백기태'에게는 강렬한 햇빛에 가까운 조명을 사용해 직진적인 에너지와 과거를 지우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했고, **"꺼요, 난 어두컴컴한 게 좋아요"**라는 대사처럼 어둠에 익숙한 '장건영'에게는 낮은 조도와 무거운 톤의 조명을 입혀 인물의 내면을 그대로 담아냈다.

방대한 고증 자료와 영상들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와 가까운 질감을 구현한 CG는, 작품의 톤앤매너에 맞는 적절한 변주를 더해 전체적인 구도부터 디테일한 요소까지 균형 있게 완성되었다.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연스러운 CG 작업은 <메이드 인 코리아>만의 시공간적 리얼리티를 기술적, 미학적으로 모두 충족시켰다. 1970년대의 공기와 인물의 내면을 정교하게 담아낸 이 프로덕션 디자인은 시리즈 그 이상의 시네마틱한 체험을 선사하며, 강렬한 비주얼로 극의 전개에 힘을 더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CHARACTER & CAST 1

“무시당하기 싫으면 먼저 밟아버리고…
앞길 막는 새끼가 있으면, 치워버리면 돼.
어차피 세상은 힘 있는 놈이 다 해 먹는 거야.”

부와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는 중앙정보부 과장 ‘백기태’

‘황국평’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인 중앙정보부 정보과 과장이 된다.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로지 돈과 힘뿐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야망에 불타올라 불법 사업을 도모하는 위험한 이중생활을 감행한다.

압도적 아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I 현빈

영화 <하얼빈>, <교섭>, <공조> 시리즈부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품에서 탄탄한 신뢰를 쌓아 온 배우 현빈이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로 첫 OTT 시리즈 도전에 나선다. 이번 작품에서 그는 중앙정보부 과장의 신분으로 더 큰 힘과 돈을 거머쥐려는 야심 아래 불법 사업에 뛰어드는 ‘백기태’ 역을 맡아 극 전체의 흐름을 끌고나간다. 현빈은 이번 작품의 캐릭터 해석 과정에 대해 **“기존 대본에 ‘백기태’가 도달하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지점을 넘어 아예 한계 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더 흥미롭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렸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 중에 자신에 대한 욕망이 가장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표현된 인물인 것 같다”**라고 덧붙이며 작품에 대한 깊은 몰입을 드러내 날것에 가까운 욕망을 지닌 ‘백기태’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 우민호 감독 역시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욕망이 얼마나 과감하게 표현되는지 무서울 정도였다”**라며 찬사를 전해, ‘백기태’를 통해 현빈이 보여줄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에 기대감을 높인다.

|Filmography|

Movie

<하얼빈>(2024), <교섭>(2023), <공조2: 인터내셔날>(2022), <창궐>(2018), <협상>(2018), <꾼>(2017), <공조>(2017), <역린>(2014),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2011), <만추>(2011), <나는 행복합니다>(2009), <백만장자의 첫사랑>(2006), <키다리 아저씨>(2005), <돌려차기>(2004), <샤워>(2002)

Drama | Series

<메이드 인 코리아>(2025), <사랑의 불시착>(2019),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2018), <하이드 지킬, 나>(2015), <시크릿 가든>(2010), <친구, 우리들의 전설>(2009), <그들이 사는 세상>(2008), <눈의 여왕>(2006), <내 이름은 김삼순>(2005), <아일랜드>(2004), <논스톱 4>(2003), <보디가드>(2003)

CHARACTER & CAST 2

“왜 합니까, 포기를? 나쁜 놈 잡는 게 내 일인데”
“난 상관 안해요, 중정이건 중정 할아비건...
날 상대하려면 각오를 해야 할 거요.”

광기 어린 집념으로 쫓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장건영’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악착같이 혼자 힘으로 검사가 되었다. 검찰 조직 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국가의 예민한 사건들만 파헤치던 외골수로, ‘백기태’를 집요하게 수사하던 중 거대한 범죄 카르텔을 마주한다.

폭넓은 연기력으로 화면을 장악하는 배우 I 정우성

영화 <서울의 봄>을 비롯해 <보호자>, <헌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내 머리 속의 지우개> 까지. 한국 영화사에 굵직한 자취를 남긴 작품들에서 장르를 불문하고 활약을 이어온 정우성이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또 한 번 새로운 변신을 선보인다. 이번 작품에서 그는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는 강한 집념의 외골수 검사 ‘장건영’ 역을 맡아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정우성은 뛰어난 캐릭터 해석력을 기반으로 ‘장건영’을 더욱 입체적으로 완성했다. **“‘장건영’이라는 인물이 1970년대의 감성을 품을 수 있도록, 표정과 목소리 톤을 다르게 구현하려고 했다. 단어 하나하나에 담을 수 있는 표정과 정서가 무엇인지를 늘 의식하며 촬영했다”**라는 그의 말처럼, 캐릭터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치밀한 표현을 더한 정우성은 ‘백기태’와의 정면 대결 속에서도 분명한 색을 지닌 캐릭터를 완성해낸다.

|Filmography|

Movie

<하얼빈>(2024), <서울의 봄>(2023), <보호자>(2023), <헌트>(2022), <강철비2: 정상회담>(2020),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2020), <증인>(2019), <인랑>(2018), <강철비>(2017), <더 킹>(2017), <아수라>(2016), <나를 잊지 말아요>(2016), <마담 뺑덕>(2014), <신의 한 수>(2014), <감시자들>(2013), <검우강호>(2010), <호우시절>(2009), <선물>(2009),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중천>(2006), <데이지>(2006), <새드 무비>(2005), <내 머리 속의 지우개>(2004), <똥개>(2003), <무사>(2001), <러브>(1999), <유령>(1999), <태양은 없다>(1999), <모텔 선인장>(1997), <비트>(1997), <상해탄>(1996), <본 투 킬>(1996), <구미호>(1994) 외 다수

Drama | Series

<메이드 인 코리아>(2025), <사랑한다고 말해줘>(2023), <날아라 개천용>(2020-2021),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소리>(2011-2012), <아테나: 전쟁의 여신>(2010-2011), <1.5>(1996), <곰탕>(1996), <아스팔트 사나이>(1995) 외 다수

CHARACTER & CAST 3

“나 밟고 쉽게 빠져나갈 생각 말고, 제대로 수습하라고 해.
난 절대 혼자 안 죽을 거니까.”

‘백기태’의 동생이자 육사 출신 군인 장교 ‘백기현’

육사에 수석으로 진학해 보안사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 나간다.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형 '백기태'에 대해 애증의 감정이 교차하고, 그와 달리 혼자 힘으로 번듯한 출세를 하겠다고 다짐한다.

자신만의 세계를 충실히 구축해 온 배우 I 우도환

드라마 <구해줘>에서 '석동철'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주목받은 뒤, <사냥개들>, <더 킹: 영원의 군주>, <Mr. 플랑크톤>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글로벌 대세로 입지를 굳힌 우도환이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육사 출신 장교이자 '백기태'의 동생 '백기현'으로 돌아온다. '백기현'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군인으로, 형 '백기태'를 사랑하고 동경하는 마음과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 점차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뒤엉킨 인물이다. 우도환은 첫 시대극에 도전, 각진 군인의 모습부터 흔들리는 내면의 모습까지 설득력 있게 소화해 내 극의 몰입감을 배가시킬 예정이다. **“‘백기현’ 자체가 내면이 섬세하고 레이어가 많아 어렵고 힘든 역할인데, 우도환 배우가 현장에서 우민호 감독과 함께 캐릭터의 결을 더 새롭게 살려준 부분이 있었다. 대본에서보다 훨씬 단단한 ‘기현’이 나온 것 같다”**는 박은교 작가의 말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선을 그려내며 작품의 또 다른 구도를 탄탄하게 책임진 그의 활약에 기대가 모인다.

|Filmography|

Movie

<마스터>(2016), <사자>(2019), <신의 한 수: 귀수편>(2019), <멍뭉이>(2023)

Drama | Series

<메이드 인 코리아>(2025), <Mr. 플랑크톤>(2024), <사냥개들>(2023), <조선변호사>(2023), <더 킹: 영원의 군주>(2020), <나의 나라>(2019), <위대한 유혹자>(2018), <매드독>(2017), <구해줘>(2017), <우리집에 사는 남자>(2016)

CHARACTER & CAST 4

"진실보다는… 사람들이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차피, 다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요."

국가의 권력을 은밀히 쥐고 흔드는 고급 요정의 마담 '배금지'

권력 실세들이 드나드는 고급 요정의 마담으로 욕심이 대단하고 실리에 밝다. 미국으로 떠났었지만, 돌연 귀국해 '윗분'들의 심기를 거스른다. 결국 '황국평'의 지시로 '백기태'의 감시를 받게 된다.

캐릭터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독보적인 존재감 I 조여정

조여정은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 <살인자 리포트>, <좀비딸>, <히든페이스>, <인간중독> 등 인상적인 작품 속에서 강렬한 캐릭터 표현력과 섬세한 감정 연기로 사랑받아온 배우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는 '윗분'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여인 '배금지' 역에 분해 치명적인 매력을 드러낸다. 조여정은 **"제가 보통 무섭다고 느낄 때는 도전해야 하고 해내기 어렵다고 느낄 때인데, '배금지'는 그런 의미로 무서웠다. 너무 매력 있어서"**라고 캐릭터에 대한 부담과 설렘을 전하기도 했으나, **"'배금지'가 사실 되게 어린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많은 권력자들 틈에서 자기 입지를 그 정도로까지 만들어 올라갔다는 것이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 매력적인 부분을 조여정 배우가 대본에 묘사된 '금지' 캐릭터보다 10배, 20배 훨씬 더 배우가 가진 에너지와 아우라로 좋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다"**라는 박은교 작가의 말처럼, 한계 없는 욕망을 가진 '배금지'는 조여정의 노련한 연기를 만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완성되었다.

|Filmography|

Movie

<살인자 리포트>(2025), <좀비딸>(2025), <히든페이스>(2024), <타로>(2024), <기생충>(2019), <워킹걸>(2015), <인간중독>(2014), <표적>(2014), <후궁 : 제왕의 첩>(2012), <방자전>(2010), <흡혈형사 나도열>(2006) 외 다수

Drama | Series

<메이드 인 코리아>(2025), <타로: 일곱 장의 이야기>(2024), <하이클래스>(2021), <바람피면 죽는다>(2020), <99억의 여자>(2019), <아름다운 세상>(2019), <완벽한 아내>(2017), <베이비시터>(2016), <이혼변호사는 연애중>(2015), <해운대 연인들>(2012), <로맨스가 필요해>(2011), <2009 전설의 고향>(2009), <집으로 가는 길>(2009), <쩐의 전쟁 - THE ORIGINAL>(2008), <얼마나 좋길래>(2006), <조선에서 왔소이다>(2004), <애정의 조건>(2004), <흥부네 박 터졌네>(2003), <태양의 남쪽>(2003), <장희빈>(2002), <야인시대>(2002), <남의 속도 모르고>(1999) 외 다수

CHARACTER & CAST 5

"내 시험 붙어도,
어차피 여자는 검사로 안 뽑아 준다 아입니까…
한국에 여자 검사 아직 한 명도 없십니더."

'장건영'과 범죄 카르텔을 쫓는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 '오예진'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1차도 패스한 실력파로 마약 수사반에 발령받은 신임 수사관. 부산 토박이로 어떤 현장에서도 앞장서는 강심장이다. '장건영'과 함께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실체를 쫓는다.

다채로운 매력의 소유자 I 서은수

영화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드라마 <수사반장 1958>, <미씽: 그들이 있었다>, <리갈하이>, <황금빛 내 인생>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배우 서은수가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그 어떤 현장에서도 앞장서는 강심장의 소유자이자 사법고시 1차도 패스한 엘리트 신임 수사관 '오예진'으로 돌아왔다. 서은수는 **"'오예진'은 밝고 활동적인 모습 뒤, 그 시대에 보기 드문 엘리트적인 모습이 많다. 초반의 순수한 모습에서 점점 더 냉철해지고 독기 있어지고 목표가 생긴, 점층적인 '오예진'만의 욕망을 만들고 싶어서 가장 고민했다"**고 전하며, 캐릭터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가 그려낼 생동감 넘치는 '오예진'은 시리즈 전반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Filmography|

Movie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2022), <킹메이커>(2022), <너의 결혼식>(2018), <영시>(2018), <홍어>(2016), <살인의 시작>(2014)

Drama | TV Series

<메이드 인 코리아>(2025), <수사반장 1958>(2024), <사장님을 잠금해제>(2022-2023), <미씽: 그들이 있었다>(2020), <리갈하이>(2019), <탑매니지먼트>(2018),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2018), <황금빛 내 인생>(2017-2018), <듀얼>(2017), <낭만닥터 김사부>(2016-2017), <질투의 화신>(2016)

CHARACTER & CAST 6

“다음에도 약속을 어기면,
내가 시간 낭비한 대가까지 톡톡히 치러야 할 거예요”

능력 좋은 로비스트로 일본 야쿠자의 실세 ‘이케다 유지’

일본 암흑가 ‘이케다’ 조직의 회장 눈에 들어 수양딸로 발탁, 현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원로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되겠다는 포부로 한국에서의 사업 도모를 위해 ‘백기태’에게 접근한다.

내면의 깊이를 담아내는 얼굴 I 원지안

원지안이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일본 야쿠자의 실세인 ‘이케다 유지’로 돌아온다. <오징어 게임 시즌2>와 <D.P.> 시리즈, <북극성> 등에서 탄탄한 연기를 선보이며 주목받아온 원지안은, 이번 작품에서 야심찬 포부를 지닌 로비스트 ‘이케다 유지’를 맡아 새로운 매력을 펼친다. 원지안은 절제된 감정선과 섬세한 제스처로 독보적인 분위기를 구축, ‘이케다 유지’로 완벽하게 변신해 극 중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다. 원지안은 캐릭터에 대해 **“‘이케다 유지’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장면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어느 순간 어떤 포인트를 줄 수 있을지를 찾는 데 공을 들였다”**라며 강인함과 여성스러움을 동시에 지닌 ‘이케다 유지’만의 매력을 예고했다.

|Filmography|

Movie

<해피 뉴 이어>(2021)

Drama | Series

<메이드 인 코리아>(2025), <경도를 기다리며>(2025), <북극성>(2025), <오징어 게임 시즌2>(2024), <D.P. 시즌2>(2023), <가슴이 뛴다>(2023),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2022), <소년비행2>(2022), <소년비행>(2022), <D.P.>(2021)

CHARACTER & CAST 7

“실장님도 항상 주변 잘 살피시고 몸 챙기십시오.
아시다시피 내가 누굴 보내기 전에 상의를 안 하는 성격이라.”

VIP의 총애 속 야심을 품은 대통령 경호실장 ‘천석중’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각하’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다. 사람은 믿지 않지만, 돈은 믿는 타고난 사업가이자 전략가. 중정 간부들을 휘하에 놓고 부리는 중정의 핵심인 동시에 진짜 살아있는 권력.

캐릭터에 새로운 입체감을 더하는 감각 I 정성일

배우 정성일은 영화 <H>로 데뷔한 이후 연극과 뮤지컬 무대는 물론, 드라마 <비밀의 숲 2>,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늑대사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우로서의 지평을 확장해 왔다. 특히 시리즈 <더 글로리>를 통해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그는, 최근 영화 <살인자 리포트>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입지를 굳혔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정성일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인 중정을 휘하에 둔 대통령 경호실장 ‘천석중’ 역을 맡아 극에 묵직한 긴장감을 더한다. **“정성일 배우가 하면 그만의 어떤 세련됨, 예민함과 날카로움이 묻어나는 세련된 ‘나쁜 놈’ 같은 거다”**라는 우민호 감독의 말처럼, 고유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사람을 믿지 않는 냉혹한 권력자 캐릭터에 부드러우면서도 위압적인 결을 부여한 그는, 극의 입체감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Filmography|

Movie

<살인자 리포트>(2025), <전지적 독자 시점>(2025), <84제곱미터>(2025), <전,란>(2024), <늑대사냥>(2022), <말임씨를 부탁해>(2022), <반드시 잡는다>(2017), <프랑스 영화처럼>(2016), <기술자들>(2014), <배우는 배우다>(2013), <사랑의 확신>(2011), <페어 러브>(2010), <쌍화점>(2008), <H>(2002)

Drama | Series

<메이드 인 코리아>(2025), <O'PENing - 로드 투 외과의사>(2025), <트리거>(2025), <비긴즈유스 (Begins≠Youth)>(2024), <더 글로리>(2022), <우리들의 블루스>(2022), <꽃 피면 달 생각하고>(2021), <배드 앤 크레이지>(2021), <타임즈>(2021), <산후조리원>(2020), <비밀의 숲 2>(2020), <99억의 여자>(2019), <이몽>(2019), <돌아온 일지매>(2009)

CHARACTER & CAST 8

"이라믄 같이 일 못합니더. 그래 날 못 믿겠으면 쏘이소!"

부산 경제를 주무르는 조폭 '만재파'의 행동대장 '강대일'

부산에서 온갖 범죄로 지하경제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만재파'의 2인자. 뒷거래 도중 두목과 함께 죽을 위기에 몰리지만, '백기태'에 의해 목숨을 부지하고, 이후 그의 지시로 불법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장르를 넘나드는 디테일의 장인 I 강길우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연기로 독립영화계에 이름을 각인시킨 강길우는 드라마로 영역을 확장,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이번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는 부산 조폭 '만재파'의 행동대장 '강대일' 역으로 분해, '백기태'와 '장건영' 사이에서 자신만의 욕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입체적인 인물을 보여준다. 그는 **"작품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자기의 욕망을 그득그득 안고 보여준다. 세력과 부, 순애보 같은 사랑 등 여러 가지 욕망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싶었다"**고 전한 바 있다. 강길우가 섬세한 표현력으로 탄생시킨 '강대일'은 서사 곳곳에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과 힘의 균형을 더할 예정이다.

|Filmography|

Movie

<여름이 지나가면>(2025), <프랑켄슈타인 아버지>(2025), <전,란>(2024), <베테랑2>(2024), <서울의 봄>(2023), <절해고도>(2023), <비밀의 언덕>(2023), <몸값part.1>(2023), <여섯 개의 밤>(2023),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2023),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2023), <영화영재 금태경>(2022), <초록밤>(2022), <뒤틀린 집>(2022), <브로커>(2022), <온 세상이 하얗다>(2022), <추운 겨울에도 빛이 있다>(2021), <둔내면 임곡로>(2021), <닮은 것들>(2021), <살아짐이 사라짐>(2021), <북극성>(2021), <식물카페, 온정>(2021), <더스트맨>(2021), <정말 먼 곳>(2021), <블루시티서울>(2020), <사는게 먼지>(2020), <소풍같이>(2020), <마음 울적한 날엔>(2020), <파도를 걷는 소년>(2020), <나는 사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2019), <마이 리틀 텔레비전>(2019), <스네일 맨>(2019), <기대주>(2019), <한강에게>(2019), <시체들의 아침>(2018), <명태>(2017)

Drama | Series

<메이드 인 코리아>(2025), <굿보이>(2025), <나의 완벽한 비서>(2025), <웰컴투 삼달리>(2023), <악귀>(2023), <힘쎈여자 강남순>(2023), <연인>(2023), <더 글로리>(2022), <재벌집 막내아들>(2022), <몸값>(2022), <O'PENing(오프닝) 2022 - 첫 눈길>(2022), <살인자의 쇼핑목록>(2022)

CHARACTER & CAST 9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백기태’의 동기인 중앙정보부 과장 ‘표학수’

10년 넘게 중정에 몸담으며 조직의 생리에 빠삭한 만년 과장. ‘백기태’와 ‘천석중’, ‘황국평’의 가교 역할을 하나 속내를 드러내는 법이 없어 그들 관계에서 마지막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 갈등한다.

고유의 리듬으로 깊은 잔상을 남기는 배우 I 노재원

노재원은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비롯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살인자ㅇ난감>,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등 매 작품마다 자신만의 색을 꾸준히 쌓으며 견고한 행보를 이어왔다. 각기 다른 캐릭터 속에 독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의 연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세 권력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표학수’로 다시 한번 변주의 묘미를 보여준다. **“‘표학수’는 인물 간의 관계를 아주 잘 파악한다. 그래서 되게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의 설명처럼,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표학수’의 모습에 노재원의 특별한 리듬과 해석이 더해져 극의 몰입도와 재미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Filmography|

Movie

<보통의 가족>(2024), <세기말의 사랑>(2024), <동감>(2022), <윤시내가 사라졌다>(2022), <아빠는 외계인>(2022), <한비>(2021), <스테이세이프>(2021), <당신의 좌석은 어디인가요?>(2021), <드라이빙 스쿨>(2020)

Drama | Series

<메이드 인 코리아>(2025), <오징어 게임 시즌 3>(2025), <나인 퍼즐>(2025), <오징어 게임 시즌2>(2024),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2024), <삼식이 삼촌>(2024), <살인자ㅇ난감>(2024),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2023), <D.P. 시즌 2>(2023)

CHARACTER & CAST 10

“내가 나서야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널 앞세울 이유가 없어.”

레전드로 모시는 일본 야쿠자의 보스 ‘이케다 오사무’

'보스의 보스'라 불리는 전설적인 거물로, 오사카를 거점으로 최대 규모의 불법 사업 조직을 거느린다.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케다 유지'를 수양딸로 앞세워 조직 내 질서와 긴장감을 유지한다.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 세계적인 배우 I 릴리 프랭키

영화 <어느 가족>,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등을 통해 탁월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한 릴리 프랭키가 영화 <하얼빈>에 이어 다시 한번 우민호 감독, 배우 현빈과 재회한다. 오사카를 거점으로 불법 사업을 펼치는 '이케다' 조직의 보스 '이케다 오사무'로 분한 릴리 프랭키는 '보스의 보스'로 불리는 전설적인 거물로, 존재만으로도 위압감을 드리우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할 전망이다. **“함께 호흡을 맞추며 릴리 프랭키 배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더 여실히 느꼈다”**는 배우 원지안의 말처럼 릴리 프랭키가 보여줄 독보적인 존재감에 관심이 집중된다.

|Filmography|

Movie

<첫 번째 키스>(2025), <하얼빈>(2024), <퍼레이드>(2024), <치히로 상>(2023), <남은 인생 10년>(2022), <키네마의 신>(2021), <한번 죽어 봤다>(2020), <이혼한 두 사람>(2019), <써니: 강한 마음, 강한 사랑>(2018), <라플라스의 마녀>(2018), <써니를 찾아서>(2019), <어느 가족>(2018), <퍼펙트 레볼루션(2017), <13년의 공백>(2017), <아름다운 별>(2017), <사토시의 청춘>(2016), <이중생활>(2016), <아버지와 이토씨>(2016), <태풍이 지나가고>(2016), <괴물의 아이>(2015), <화장실의 피에타>(2015), <도쿄아포칼립스: 최후의 결전>(2015), <바쿠만>(2015), <바닷마을 다이어리>(2015), <노비>(2014), <흉악-어느 사형수의 고발>(2014), <신이 말하는 대로>(2014),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 <노란 코끼리>(2013), <모테키: 모태솔로 탈출기>(2011), <나를 둘러싼 것들>(2008), <눈먼 짐승 대 난쟁이>(2001) 외 다수

Drama | Series

<메이드 인 코리아>(2025), <누가 공작의 춤을 보았나?>(2025), <슬로우 트레인>(2025), <사랑 후에 오는 것들>(2024), <도쿄 사기꾼들>(2023-2024), <마이코네 행복한 밥상>(2023), <어떡할래 이에야스>(2023), <히야마 켄타로의 임신>(2022), <표착자>(2021),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2019-2021), <이다텐 ~도쿄 올림픽 이야기~>(2020), <불필요한 불급의 은하>(2020), <펜션 사랑은 복숭아빛>(2020), <나츠조라>(2019), <이혼한 두 사람>(2019), <100만 엔의 여인들>(2017), <은과 금>(2017), <동굴 아저씨 완전판>(2015), <료마전>(2010), <코드 블루 -닥터헬기 긴급구명- 2nd 시즌>(2010) 외 다수

CHARACTER & CAST 11

“아주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만 내가…”

악명높은 밤의 대통령 중앙정보부 국장 ‘황국평’

부산지부 총책임자로 중정뿐 아니라 국가의 직책을 악용하여 근방 조직폭력배까지 틀어쥐고 흔든다. 뒤로 몰래 금전은 물론 토지와 건물까지 착복하더니 급기야 위로 올릴 상납금까지 빼돌린다.

서사를 촘촘히 메우는 캐릭터 소화력 I 박용우

작품마다 깊이를 더하는 연기파 배우 박용우가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부산 암흑가를 장악한 중앙정보부 국장 ‘황국평’으로 분한다. 스크린 데뷔 이후 다수의 작품에서 변신을 거듭하며 연기 내공을 축적해온 그는, 이번 작품에서 욕망으로 들끓는 권력자의 얼굴을 완성한다. 박용우는 ‘황국평’에 대해 **“남을 이용하려는 사악함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연약하고 피해의식이 많은 불쌍한 면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능한 한 단순하지만 굵직한 콘셉트로 캐릭터에 접근하려 했고, 대본대로 찍은 장면이 거의 없을 만큼 많은 디테일을 현장에서 새롭게 만들어갔다”**라고 덧붙인 것처럼, 강렬한 욕망과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박용우의 단단한 연기 내공으로 완성한 ‘황국평’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암흑적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극의 서스펜스를 빼곡히 메워 긴장감 높은 서사를 완성할 예정이다.

|Filmography|

Movie

<넌센스>(2025), <노량: 죽음의 바다>(2023), <헤어질 결심>(2022), <유체이탈자>(2021), <카센타>(2019), <순정>(2016), <봄>(2014),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2013), <시간의 숲>(2012), <파파>(2012), <아이들...>(2011), <평양성>(2011), <핸드폰>(2009), <원스 어폰 어 타임>(2008),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2007), <뷰티풀 선데이>(2007), <조용한 세상>(2006), <호로비츠를 위하여>(2006), <달콤, 살벌한 연인>(2006), <작업의 정석>(2005), <혈의 누>(2005), <슈퍼스타 감사용>(2004), <연애소설>(2002), <무사>(2001), <세이 예스>(2001), <동감>(2000), <쉬리>(1999), <까>(1998), <투캅스 3>(1998), <올가미>(1997) 외 다수

Drama | Series

<메이드 인 코리아>(2025), [은수 좋은 날](2025), [메스를 든 사냥꾼](2025), [트레이서 시즌2](2022), [트레이서 시즌1](2022), [드라마 스테이지 - 오우거](2019), [프리스트](2018), [인생 추적자 이재구](2015), [내 사랑 나비부인](2012-2013), [제중원](2010), [애정의 조건](2004), [무인시대](2003-2004), [선희 진희](2001), [크리스탈](1999), [종이학](1998-1999), [아파트](1995-1996) 외 다수

DIRECTOR

"지금 살고 있는 현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시대극을 만들고자 했다"

깊은 통찰력과 묵직한 연출력!
시대를 기록하는 감독

Director | 우민호 감독

우민호 감독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통해 혼란과 도약이 공존하던 1970년대를 관통하는 고밀도의 서사를 독보적인 시네마틱 퀄리티로 담아내 강렬한 몰입의 경험을 선사한다. 영화 <하얼빈>, <남산의 부장들>, <내부자들>을 연출하며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큰 줄기를 예리하게 포착해 온 우민호 감독은 이번 작품을 통해 첫 OTT 시리즈 연출 도전에 나섰다. **"6부작 시리즈를 찍으면서 하나하나가 한 편의 영화이길 바랐다. 그 점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의 말처럼, 그간 굵직한 작업을 통해 다져 온 탄탄한 시나리오 구성, 짜임새 있는 연출력, 엣지 있는 미쟝센, 개성 강한 캐릭터 구축까지 자신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현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시대극을 만들고 싶었다. 지금의 시청자들과 함께 그 시대를 반추해 보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우민호 감독의 언급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단순한 시대의 재현을 넘어 욕망의 민낯을 생생히 보여주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감독의 이러한 시선은 심리 스릴러의 서늘한 서스펜스와 예측 불가능한 권력 게임의 긴장감 위에 묵직한 울림을 더해, 작품의 장르적 매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이처럼 서사와 장르를 정밀하게 구축해 완성시킨 디즈니+의 하이엔드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압도적인 완성도와 강렬한 여운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Filmography|

Movie

<하얼빈>(2024), <남산의 부장들>(2020), <마약왕>(2018), <내부자들>(2015), <간첩>(2012), <파괴된 사나이>(2010),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2000)

Drama | Series

<메이드 인 코리아>(2025)

PRODUCTION COMPANY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부터 <서울의 봄>, <하얼빈>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까지! 독창적인 시선과 탄탄한 기획력으로 웰메이드 작품을 선보이는 제작사

PRODUCTION COMPANY | 하이브미디어코프

종합 콘텐츠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2014 년 창립 이후 매년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며 한국 콘텐츠계에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창립작인 영화 <내부자들>을 시작으로, <덕혜옹주>, <곤지암>, <남산의 부장들>, <천문: 하늘에 묻는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서울의 봄>, <핸섬가이즈>, <보통의 가족>, <하얼빈>, <말할 수 없는 비밀>, <야당>, <보스> 그리고 드라마 <착한 사나이>까지 다양한 장르적 재미와 완성도 높은 작품들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믿고 보는 제작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3 년 개봉작 <서울의 봄>은 전국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1,312 만 관객을 달성, 2023 년 최고 흥행 스코어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2024 년 개봉한 <하얼빈>은 압도적인 영상미와 뛰어난 작품성으로 제 61 회 백상예술대상 대상(홍경표 촬영감독)과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2025 년에 개봉한 <말할 수 없는 비밀>, <야당>, <보스> 세 작품은 모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 월 방영한 첫 제작 드라마 <착한 사나이>는 안정적인 시청률로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해 웰메이드 제작사의 저력을 입증했다. 이처럼 탄탄한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춘 작품들을 제작해 온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이번에는 첫 제작 시리즈물인 <메이드 인 코리아>로 다시 한번 대중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제 73 회 칸영화제 공식 초청작 <행복의 나라로>(임상수 감독 | 최민식, 박해일), <열대야>(김판수 감독 | 우도환, 장동건, 이혜리), <암살자(들)>(허진호 감독 |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정원사들>(가제)(남동협 감독 | 송강호) 등 다채로운 작품들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6 년 공개 예정인 지니 TV 오리지널 <클라이맥스>(이지원 감독 | 주지훈, 하지원, 나나, 오정세 그리고 차주영),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 2(우민호 감독 | 현빈, 정우성, 우도환), 프리 프로덕션 중인 <내부자들>(가제)까지 시리즈 부문에서도 화려한 라인업이 대기하고 있다. 이처럼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영화와 시리즈를 넘나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CREATORS' COMMENTARY

Q.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목과 에피소드별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박은교 작가

'무엇이 한국을 만들었는가', 혹은 '한국은 무엇을 만들어왔는가'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제목 자체만으로 중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 작품이 한국의 범죄,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루는 시리즈이다 보니, 어울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각 회차가 하나의 영화처럼 전개되는 구조에 맞춰, 중심 인물이 회차마다 교차하는 흐름을 소제목에 반영해 스토리의 결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Q.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의 비하인드에 대해

우민호 감독

현빈, 정우성 배우와는 <하얼빈> 이후 다시 함께하게 된 만큼, 이번 작품에서는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분위기에서 작업해보고 싶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층 즐겁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우도환, 조여정, 서은수, 원지안, 정성일, 강길우, 노재원, 박용우 배우는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 만났지만, 작품 전반에 활력을 더하며 높은 집중도를 이끌어냈다.

이번 시리즈는 기존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보다 가벼운 마음과 열린 태도로 작품 세계를 확장해 보자는 방향성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접근이 자연스럽게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박은교 작가

'백기태'는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해 원초적 욕망을 바탕으로 세상 전체를 뒤흔들겠다는 야망까지 품게 되는 인물이다. 기본적인 욕망의 크기 자체가 큰 캐릭터인 만큼, 매력적이면서도 그 경계를 섬세하게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빈 배우는 이러한 복합적인 지점을 세련되게 구현하며, 대본에서 표현되었던 '백기태'의 이미지와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었다. 기존에 가진 이미지와 상반되는 어둡고 강렬한 에너지를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를 모았던 캐릭터였던 만큼, 그의 연기는 특별한 설득력을 더했다.

'장건영'이라는 인물은 처음 생각했던 이미지와 가장 갭이 큰 캐릭터였다. 처음에 생각했던 '장건영'은 잘생긴 이미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기태'와 대적할 수 있는 무게감과 에너지를 지닌 배우가 필요했고, 두 인물이 같은 톤과 레벨로 맞부딪힐 수 있는 균형감을 고려해 캐스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백기현'은 내면이 섬세하고 감정의 레이어가 많은 까다로운 캐릭터였지만, 우도환 배우가 우민호 감독과 함께 현장에서 끊임없이 조율하며 새로운 결의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대본보다 훨씬 단단하고 입체적인 '백기현' 캐릭터가 탄생했다.

작품 속 여성 캐릭터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이던 시대 속에서도 스스로의 위치를 확립해 가는 주체적인 인물들로 그렸다. '배금지'는 어린 나이에도 권력자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구축해 낸 인물이 지닌 당당함과 생존력을 가진 인물이다. 조여정 배우가 가진 고유의 아우라가 캐릭터를 더욱 매력적으로 확장하며 대본에 표현된 것 이상으로 매력적인 캐릭터를 완성했다.

'오예진'은 작가 본인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다고 생각한 캐릭터이다. 현실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건강한 에너지가 필요했다. 서은수 배우의 밝고 단단한 분위기가 캐릭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오예진' 캐릭터에 매력을 더했다.

'이케다 유지'는 전형적인 야쿠자 보스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젊은 여성이 그 자리에 서 있기까지의 서사가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고민했다. 현재의 모습만 보아도 자연스럽게 과거가 궁금해지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하는 시리즈인 만큼, 각 캐릭터의 차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분명 제작 과정에서 어려운 지점이 존재했지만, 우민호 감독의 정확한 캐스팅 덕분에 배우들이 대본 이상의 디테일과 생동감을 입혀 최고의 캐릭터들을 완성해 냈다.

Q. 혼란의 시대에 선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박은교 작가

<메이드 인 코리아>는 같은 시대를 두고 서로 다른 기억과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시리즈이다. 다양한 욕망을 가진 인물들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뜨거운 에너지와 서사를 통해 마치 그 시대를 직접 살아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했다.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이 왜 같은 시대를 다르게 기억하고, 어떤 이유로 그토록 강렬한 감정을 갖게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Q. <메이드 인 코리아>의 촬영 컨셉에 대해

김태성 촬영감독

다소 '옛스러운' 인상을 주는 기존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과 달리,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당시 시대를 보다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담아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촬영 전반에 걸쳐 컬러감을 높이고, 화면의 선과 대비를 명확하게 조정해 깊이 있는 질감을 구현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어둡거나 답답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장면별 디자인을 세심하게 조율했다.

Q. <메이드 인 코리아>의 조명 작업에 대해

김경석 조명감독

'1970년대 배경의 시대극'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 현대에서는 보기 어려운 과거 특유의 색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인물 간 관계와 감정을 화면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부드러운 빛이나 색감보다는 강한 콘트라스트나 다소 굵직한 선이 느껴지는 하이라이트 빛을 최대한 활용해 캐릭터의 성격과 내면적 대비를 극대화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Q.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의상 컨셉에 대해

곽정애 의상실장

격변하는 1970년대를 다룬 작품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시대적 무드는 익숙했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는 주요 인물들이 지닌 분위기와 주변 공기의 온도 차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었다. 각 인물의 직업적 특성을 기반으로 의상 콘셉트를 구성하되, 현재의 젊은 세대가 보더라도 촌스럽거나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데 신경 썼다.

Q. <메이드 인 코리아>의 CG 작업에 대해

정재훈 CG감독

시대극의 특성상 시대 고증과 작품적 설정이 맞물리는 지점이 많다. 이에 따라 시대에 어울리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면서도 현실성 있게 보이기 위한 다양한 작업이 이뤄졌다. 우민호 감독의 작업 방향성에 따라 배경을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덩어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공간을 설계했으며, 건물과 소품 등 디테일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동시에 주변 요소들과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색감 활용에 있어서, 장면 전체의 톤을 재현해 과도한 변주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화면을 구현하는 데 공을 들였다.